

“도가 무슨 물건이라도 된 줄 아느냐. 왜 닦으려고 하느냐”

황벽사2



황벽 선사의 법력으로 난폭한 호랑이가 유순해졌다는 전설의 현장이 된 호포천

허름한 황벽사를 보자 눈가에 뜨거운 것이 돈다. 절이라기보다는 창고 건물에 가깝다. 건물 안도 1960년대에 보았던 서커스단의 가설무대 같다. 그러나 흙바닥에 예불방석들이 반듯하게 놓였고 정갈하게 청소된 상태로 보아 전등(傳燈)의 불이 꺼진 것 같지는 않다. 법당 정면에는 황벽 선사의 선어록인 <전심법요(傳心法要)>라는 글씨가 주련처럼 크게 쓰여 있다.

법당 옆 건물에 사는 아낙네가 코흘리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순례자를 맞이한다. 낯선 사람을 본 아이가 엄마 치마 뒤로 숨는다. 아이가 복전함으로 보여 중국지폐를 내밀자 방긋 웃는다. 돌로 만든 사각 향로에 향을 꽂고 난 뒤 합장을 한다. 아마도 옛 황벽사에서 사용했던 향로이리라. 향로 너머로는 눈발 가운데 중창 불사 중인 대웅전이 보인다. 주지스님은 출타중이라고 한다. 조랑말 한 마리가 대웅전 앞뜰에서 풀을 뜯고 있을 뿐이다.

배휴·황벽 선사에 깨달음 구한 뒤 선사 말씀 <전심법요>에 답하

아낙네에게 지금의 저 가설무대 같은 건물이 원래 법당이라고 묻자, 옛 법당은 오래 전에 쓰러져 버렸고 문화혁명 때 홍위병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창고처럼 법당을 지었다고 한다. 아낙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황벽촌 사람들의 불심이 대단하다. 옛 흔적을 안내해 달라고 하자, 우물과 건물 벽에 붙은 작은 비문을 가리킨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황벽사의 원래 이름은 영취사였다. 희운 선사가 이 사찰에 머무는 뒤에 자신의 고향인 복건 복정의 황벽산을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사찰 이름을 황벽사로 고쳤다. 1000여 년 이래 황벽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문화혁명 기간에 심하게 훼손되어 지금은 절터와 무너진 벽의 일부만 남아 있다. 벽돌 위에 영취사라는 글자의 흔적만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명·청대 때만 해도 황벽사의 규모는 대단했던 것 같다. 황벽촌 뒷산에 조성된 묘탑들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훼손이 덜 된 황벽사 37세와 38세의 묘탑들은 방장급의 위를 드러내고 있고, 당시 사격(寺格)이 임제종 본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황벽사가 웅성한 계기는 황벽의 재가제자 배휴의 막후지원이 절대적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황벽선사와 배휴의 만남은 당 무종 회창 2년(842)에 배휴가 종릉(홍주 남창 부근의 도시) 관찰사일 때 응흥사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당 선종 대종 2년(848) 완릉(안휘성 무호 동남쪽의 선주) 개원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홍주 개원사(대안사, 완릉 개원사와 다름)에서 배휴가 황벽의 한 마디에 깨달음을 이룬 뒤 재가제자가 되어 더욱 인연이 깊어진다. 배휴가 깨달음을 이루는 기연(機緣)의 선회가 <전심법요>나 <선문염송집>에 나온다.

황벽 선사께서 일찍이 대중을 흡수하고, 홍주 땅의 개원사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상공 배휴 거사가 절로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그 절의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중국의 절에는 조사와 고승들을 벽화로 그리는 전통이 남아 있다. 절의 회랑이나 법당 벽에 그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 절과 인연 있는 고승들입니다.”
“고승들의 얼굴이 그럴듯하구려. 그럼, 이 고승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지스님이 아무런 말도 못했다. 배휴가 말문이 막힌 주지스님에게 다시 말했다.

“이 절에 선승은 안 계십니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마침내 배휴는 황벽 선사를 청하여 보았다. 배휴는 황벽 선사에게도 조금 전처럼 물었다.

“얼굴이 그럴 듯한 이 고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때 황벽 선사가 큰소리로 배휴를 불렀다.
“배휴!”
배휴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다.

“에.”
“어디 있는고.”
배휴는 황벽 선사의 말씀에 단박에 깨졌다. 그런 뒤 제자로서 예를 갖추어 황벽 선사에게 개당설법을 청하였다.

이와 같이 재가제자가 된 인연으로 배휴는 황벽 선사의 법문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심법요>이다. 참고로 ‘단박에 깨졌다’라는 <전심법요>의 기록을 보고 하근기의 보통사람들이 의아할까 봐 부연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깨침이 이루어진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의심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휴가 황벽 선사를 홍주 개원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방장관 시절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벽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민의 생사여탈권을 쥐 관찰사로서 체통도 점어둔 채 아첨지력으로 법을 구하려 다녔던 것이다. 이 정도의 간절한 참방이라면 깨달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재가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깨침의 인연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다가 황벽 선사의 대갈일성으로 푼 채 깨졌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도가 무슨 물건이라도 된 줄 아느냐. 왜 닦으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제방의 종사들이 서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참선하여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둔근기(鈍根機)를 이끌어 주는 말일 뿐이다. 그러나 의지할 것이 못 되느니라.”

“둔근기를 위한 말이라면, 상근기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합니까.”
“상근기라면 어찌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느냐. 저 자신도 얻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거늘. 더구나 따로 뜻에 합당한 법이 어디 있겠느냐. ‘법이 무슨 모양 이디냐’고 한 경(經)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리만 된다면 마음의 힘이 탈게 되는 것이니라.”
“온통 끊어져버려서 없다는 것도 당치 않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었다 하였으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너는 찾으려 하느냐.”
“스님께서는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찾지 않으며 그 자리는 바로 쉼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하였느냐.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어떻게 저것을 끊겠느냐.”

“이 법은 곧 허공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허공이 언제 너더러 같대거나 다르다고 말하더냐. 내 잠시 이렇게 말하니 너는 당장 여기에 알음알이를 내는구나.”

“사람들과 더불어 알음알이를 내지 않음이 마땅한 것입니까.”
“내 너를 방해한 적은 한 번도 없거니와, 요컨대 알음알이란 뜻(情)에 속한 것으로서 뜻이 생기면 지혜가 막히게 되느니라.”

“여기에 있어서 뜻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뜻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을 수 있는 선문답들인데, 배휴가 깨달음의 인연을 깊게 만들어가는 종릉과 완릉 시절에 물었던 도(道)에 대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답을 모아 기록한 까닭은 어떤 의도가 있는 듯하다. <전심법요>의 서문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될 것도 같아 요약해서 소개해 본다.

“내가 회창 2년 종릉에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산중으로부터 스님을 고을로 모셔 용흥사에 계시도록 하고 아첨지력으로 도를 물었으며, 대종 2년 완릉에 관찰사로 재임할 때에 다시 가서 예로써 맞이하여 관사에 모시고 개원사에 안거하시도록 하여 아첨지력으로 법을 받아 물러 나와서 기록했는데, 열 가운데 한둘밖에는 얻지 못했다.”

이를 마음의 인장(心印)으로 삼아 차고 다니면서 감히 드러내어 발표하지 못하다가, 이제 신령스런 경지에 드신 그 정묘한 뜻이 미래에 전하여지지 못할까 두려워하마...

여기서 ‘열 가운데 한둘밖에 얻지 못하였다’라는 문장은 더 큰 공부의 인연을 지어가는 배휴 자신의 심사를 고백한 글이 아닐까. 거꾸로 말하자면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공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심법요>를 기록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선의 개론서’라고 한 성철 스님의 평은 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황벽사에 가장 확실하게 남아 있는 유적은 호포천(虎跑泉)이다. 호포천은 지금도 황벽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샘이며, 황벽 선사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현장이다. 황벽 선사가 주지스님으로 와서 황벽사 대중들과 마을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를 불력으로 굴복시키고 석산(石山)의 강한 기운을 높였다는 전설이다. 황벽 선사의 법력으로 유순해진 호랑이가 선사의 입적 소식을 듣고는 선사의 묘탑 앞 돌에 부딪쳐 죽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샘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했다.



문화혁명 때 홍위병의 눈을 피해 황벽촌 사람들이 창고 형식으로 지은 황벽사 법당.

물이 흘러나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호포천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어떤 난폭한 사람이 황벽 선사의 법력에 감화되어 불법에 귀의한 사건이 전설화되면서 호랑이로 둔갑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황벽 선사의 위신력(威神力)인 것 같다. 그런데 황벽 선사의 묘탑은 호포천 전설과 달

리 샘에서 15분 정도 걸어가 산자락에 있다고 황벽촌의 한 청년이 알려준다. 30세의 유환연(喻煥然)이라는 순박한 청년인데 친절하게도 앞장을 서준다.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한 '다행' 아제 여행사
다음검색 “아제 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p>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 동참금 : 1,690,000원 / 1인 	<p>중국 강호선종사찰 8일 (11본선사)</p> <p>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양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법회 / 석두회현 / 동산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 (2차)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 들맞이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p>인도.네팔 8대성지 11일</p> <p>위대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탄생에서 열반까지 근부화도와 함께 떠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 2011년 3월 8일 동참금 : 2,390,000 (팁불포함)
<p>*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코르왓트, 바루온사원의 전설 - 3월 11일 / 990,000 	<p>* 실크로드&블고로드 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령석굴 - 트루판 - 돈황석굴 - 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 / 1인 	<p>* 불탑의 나라 미얀마 / 방콕 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방콕 - 4월 14일 1,990,000
<p>* 구화산 / 보타산 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 		

2010 부탄을 처음 접하는 여행사
의밀라아 은둔왕국 부탄/다질링 9일
치리지방 다질링 - 파로 - 수도 팀푸 - 여왕궁 푸니카 - 파드마삼바바 수행동굴 탁실

출발 : 4/7, 5/12 (월, 목 출발가능)
3,090,000 / 1인
▶ 홈페이지: <http://www.ajetour.co.kr/>

밀라레파 파드마삼바바 아티샤 성인들의 이야기
티벳으로 떠나는순례 great adventure!!

(티베 / 아눔영차)
3월 23일 출발 - 1,790,000
4월 6일 출발 - 1,690,000
5월 15일 출발 - 1,890,000

지구상 최고도를 달리는 정장교편 **하늘열차**
의밀라아마 정교의지터의 궁 **포탈리궁**